

오늘의 기사관

11월
▶덕천 청소년 선도대상 시상식=오전 11시 광주지방검찰청.
▶도립남도대 학장임용추천위원회=오전 11시 담양군 남도대 본부 회의실.
▶광주 전통불교 영산회차림 13주년 기념식=오후 2시 광주 시민회관.
▶광주·전남 지역혁신협의회 권역별 세미나(중남부권)=오후 3시 완도군청. 이건설 광주·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이 '남해안권 생명·웰빙 산업 거점 육성'과 '미국인 강진군 혁신담당자가 '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혁신과제'라는 주제로 발표.
(12일)
▶진도군 갈매기섬 위령제=오전 10시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갈매기섬.

광주·전남 지역혁신협의회 권역별 세미나(중남부권)

오후 3시 완도군청

▶국제 결혼가정 희망 사랑 만남의 날=오전 10시30분 강진군 문화회관.
▶목포 작은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=오후 2시 목포시 산정동 산정새마을금고 2층 어린이 도서관.
▶삼삼화재 콜센터 개소식=오후 3시 광주시 서구 금호생명빌딩.
▶광주·전남지역혁신협의회 권역별 세미나(서남권)=오후 3시 목포시청. 이건설 광주·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이 '대중국 교류 관광거점 육성'과 '미국인 강진군 혁신담당자가 '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혁신과제'라는 주제로 발표.

▶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기금마련 '질화로 콘서트'=11일(월)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.
▶테너 양동훈 독창회=11일(월)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.
▶제 5회 담양문화원 문화학교 종합예술제=12일(화) 오후 2시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. '희망한그릇'이라는 주제로, 판소리·고전무용·민요·설장구 등 공연.
▶화요예술무대 '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'=12일(화)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.
▶제 9회 영·호남 미술교류전=13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.
▶송묵회전=14일까지 광주 일곡도서관 갤러리. 동림미술연구원 회원들의 한국화 작품전.

▶절주 인형극=11일(월) 오전 10시, 오후 2시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. 국민건강증진운동본부 장교이자씨 인형극단 공연.

▶박일정전=12월31일까지 고흥도화천미술관. 도판화(陶板畵·도자기로 만든 판에 그린 그림) 작품 전시.
▶중국 영남 현대미술 작품전=12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.
▶청동회전=13일까지 무등예술관. 청동회 25번째 회원전. 유화, 한국화 작품전.
▶광주·전남 문인화협회전=14일부터 20일까지 마트로 갤러리. 문인화 116점 전시.
▶아트그룹 엘레멘(L.M.N) 창립기념전=14일부터 20일까지 대동갤러리. 조선대 출신 젊은 작가들의 작품전.

역사속의 오늘

▶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소련의 저항작가 솔제니친 태어날(1918)
▶정부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 가입(1952)
▶강릉발 서울행 KAL기 납북(1969)

전시

▶제 9회 영·호남 미술교류전=13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.
▶송묵회전=14일까지 광주 일곡도서관 갤러리. 동림미술연구원 회원들의 한국화 작품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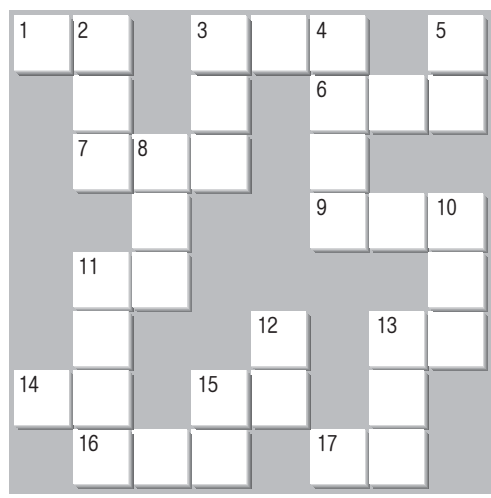
함께 풀어봅시다 <231>

가로풀이

1.눈이 내리거나 눈이 쌓인 경지. 3.쇠로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를 박은 것. 주로 단단한 땅을 파는 데 쓴다. 6.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. 7.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일. 이번 축구 한일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모두의 ~이다. 9.각을 재는 기구.→각도기. 11.의상과 풍자로 관객을 웃기면서 인생의 진실을 명랑하고 경쾌한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.→코미디. 13.열닷새 동안, 집에 붙어박힌 지 ~만에 외출을 했다. 14.바다,강,못 등과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.→물기슭. 15.물길 막히거나 물길을 차단하여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함. 또는 수도의 급수가 끊어지거나 급수를 끊음. 16.일의 흥망,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손이나 손실, 또는 생명을 위협을 입힐만한 타격. 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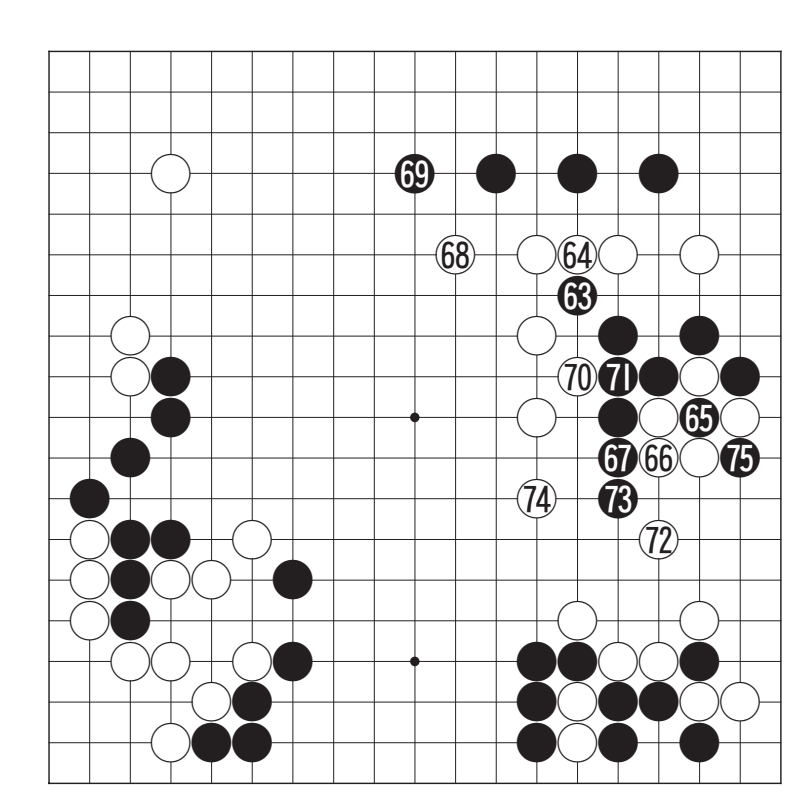
세로풀이

2.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. 범죄의 예방과 수사,피의자의 체포,공안의 유지 등을 담당한다. 3.출타기,재주넘기,공타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. 나는 ~의 줄타기를 손에 땀을 쥐고 구경했다. 4.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로 맞닿은 쪽의 발목을 묶어 세 발처럼 하여 함께 뛰는 경기. 5.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치는 힘이 능력. 또는 야구에서의 공격력을 이르는 말. 이번 스포브리그에서는 투수력 부다는 ~을 보강하기로 했다. 8.비슷한 환자들을 모아 놓고 즉흥적으로 연기하도록 하는 연극. 미국의 정신과 의사 모레노가 고안한 정신 요법의 하나로 환자들이 이를 통해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환자



를 분석하고 치료할 수 있다.→사이코드라마. 10.도레미 등처럼 음계를 이루는 자리의 이름. 각 음의 높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. 11.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. 그 대가의 도에 작품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어서 ~가 있다. 12.물을 빨아들임, 또는 소화관의 벽을 통해 영양소나 물이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들어가는 일. 스펀지가 물기를 ~하다. 13.러시아의 대표적인 술. 보리,호

를 분석하고 치료할 수 있다.→사이코드라마. 10.도레미 등처럼 음계를 이루는 자리의 이름. 각 음의 높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. 11.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. 그 대가의 도에 작품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어서 ~가 있다. 12.물을 빨아들임, 또는 소화관의 벽을 통해 영양소나 물이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들어가는 일. 스펀지가 물기를 ~하다. 13.러시아의 대표적인 술. 보리,호



제15회 光日盃 광주·전남 지역바둑대회
절호의 봉쇄 5보(63~75)
흑 65로 따냈을 때 백66으로 이어도 흑이 못산다는 것이 백의 자랑이다. 물론 우변의 백한점을 잡자는 패가 있지만 이것은 흑의 부담이 크다. 이강민 5단도 흑 69로 지킬 것은 지켜가며 나름대로 강하게 항거하고 있다.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짧은 바둑은 공격자가 유리하다는 속설대로 실수가 뒤여 나온다.
<참고도>
이강민 5단도 흑 69로 지킬 것은 지켜가며 나름대로 강하게 항거하고 있다.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짧은 바둑은 공격자가 유리하다는 속설대로 실수가 뒤여 나온다.
<규칙 9단·본보 바둑해설위원>

바둑소식
이세돌 9단 100국 돌파
이세돌 9단이 지난 7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회 백십키퍼페 입신회강전 8강전 대국을 치름으로써 올 해 100국을 돌파했다.
이 9단은 이날 현재 74승으로 다승 1위, 승률 2위에 올랐다. 한해 최다대국 기록 보유자는 지난 89년 111국(84승 27패)을 소화했던 이창호 9단이다.
이 9단은 이날 최규병 9단을 191수만에 흑 불계로 꺾고 백십키퍼페 3연패의 초석을 다졌다. 준결승에 오른 이세돌 9단은 조한승 9단과 결승진출을 다툰다.
또 다른 준결승전에서는 박정삼 9단이 유창영 9단과 격돌한다.
/윤영기기자 penfoot@kwangju.co.kr

뉴스퀴즈

42. 천식을 앓던 '악골' 소년이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. 이 선수는 이번 대회 자유형 200m,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지난 8일 열린 남자 자유형 1천 500m결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.
경영 3관왕은 1982년 뉴델리 대회 때 최윤희가 배영 100m, 200m, 개인혼영 200m에서 우승한 이후 무려 24년만에 달성된 것입니다.
이 선수는 누구일까요.
①박태환 ②이원희 ③장성호 ④최준상

참여방법
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, 1위 당첨자에게 고급진공정초기 1대,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. (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)
보내실 곳
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-711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1일(음 10월 21일 甲戌)
子 36년생 아래 사람에게 지비를 베풀어라. 48년생 나쁜 일이 찾아다니. 주의해야 할 것이다. 60년생 집 안팎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. 72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. 84년생 돈이 생기니 바로 쓸 구멍이 생긴다. 행운의 숫자: 06, 29
丑 37년생 온 식물이 평안하다. 49년생 알뜰살뜰 지내라 하리다. 61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. 73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. 85년생 인덕을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. 행운의 숫자: 19, 25
寅 38년생 계속 전진하면 좋은 길이 보인다. 50년생 어려움을 잠시 일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려라. 62년생 친구는 언제나 반가우니 친구를 찾아보라. 74년생 걱정은 걱정을 하는 자만 갖는다. 마음 편히 일하라. 행운의 숫자: 11, 40
卯 39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다. 51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아يا 이해가 된다. 63년생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라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. 75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행하면 발전이 있다. 행운의 숫자: 12, 36
辰 40년생 과거에 얽매지 말고 신상을 계획하면 즐거움이 있으리라. 52년생 인생은 연줄이다 멋지게 보내라. 64년생 오늘은 안전운전을 해야 하리다. 76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라 일석이조가 있으리라. 행운의 숫자: 08, 36
巳 41년생 가정 불만을 조심하고 서로서로 양보하면 괴할 수는 있으리라. 53년생 구실수가 타인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.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. 77년생 정도를 걸으면 마음은 맑아진다. 행운의 숫자: 09, 40
午 42년생 활기찬 하루이니 용기 백배 하라. 54년생 가까운 이웃과 좋은 하루를 보내면 길사가 생길 수 있다. 66년생 마음은 갈망질랑, 심신의 안정을 찾으라. 78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조상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라. 행운의 숫자: 07, 30
未 43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. 55년생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재워지리라. 67년생 좋은 옷 입고 즐거운 날이다. 79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. 어려운 일이 쉽게도 풀릴 수 있다. 행운의 숫자: 21, 37
申 44년생 듣기 좋은 말이 되니 주의하여 들으라. 56년생 새 문서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. 68년생 멀리 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. 80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면 실패한다. 행운의 숫자: 14, 33
酉 45년생 식욕이 넘치니 조심은 해야 할 것이다. 57년생 지금은 고동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. 69년생 다부면 손재주 양보하면 득이 된다. 81년생 지난 과거가 문제를 가져 올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 보라. 행운의 숫자: 17, 34
戌 46년생 편안한 하루이니 큰 득은 없다. 58년생 오늘 결정을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라. 손재가 보인다. 70년생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지만 내일을 생각하라. 82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마음이 현안하다. 행운의 숫자: 03, 33
亥 47년생 자녀의 주변도 살펴봐라,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다. 59년생 문단속을 잘하라 도둑이 들 수도 있다. 71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. 83년생 초고후만 처음은 고생이었으나 나중은 편안하다. 행운의 숫자: 05, 38

굿모닝 잉글리쉬 <794>

It looks like~
보아하니
A: It looks like that's giving you some problems.
B: A bunch of them.
A: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?
B: Sure. Hold this piece while I hammer.
A: 보아하니, 그 것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군요.
B: 아주 많이 받아요.
A: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습니까?
B: 물론이요. 제가 망치질 할 때 이걸 들어주세요.
It looks like ~ : 보아하니, ~인 것 같다
A bunch of ~ : 한 무치의 ~, 한 아름의 ~
hammer : 망치로 치다
help ~ with ~ ~ 돕다
- Would you help me with the report?
제 리포트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?
- Maggie asked me to help her with filing.
Maggie는 나더러 그녀의 서류를 도와달라고 했다.

오하이오 니혼고 <794>

すみません。窓いてません
죄송합니다. 자리가 없습니다
A:窓(まど)がわの席(せき)をお願(ねが)いします。
B:すみません。窓いてません。
A:じゃ、通路側(つうろがわ)の席(せき)は?
B:はい、窓いています。
A:창쪽의 자리를 부탁합니다.
B:죄송합니다. 자리가 없습니다.
A:그럼, 통로쪽의 자리는?
B:예, 비어 있습니다.
窓(まど)がわ: 창문쪽
通路側(つうろがわ): 통로쪽
席(せき): 자리

니하오 쑹구위 <512>

臉皮太厚
뻔뻔스럽다
A:他迟到了还大模大样地进来。
B:他迟到了还大模大样地进来。
C:他迟到了还大模大样地进来。
D:他迟到了还大模大样地进来。
A:他迟到了还大模大样地进来。
B:他迟到了还大模大样地进来。
C:他迟到了还大模大样地进来。
D:他迟到了还大模大样地进来。

한자 이야기 <412>

捨生取義 (사생취의)
버릴 사, 살 생, 취할 취, 옳을 의
사생취의(捨生取義)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, 도의(道義)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한다. 도의는 인간 본심(本心)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지만, 세상의 욕망(慾望) 때문에 잃어버리기 쉽다.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점을 열렬하게 강조한 사람이 맹자이다.
생선 요리도 먹고 싶고 곰 발바닥(熊掌) 요리도 먹고 싶지만, 양쪽 다 먹을 수 없을 때는 생선을 단념하고 곰발바닥(熊掌)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(人之常情)이다. 사람의 목숨과 도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. 목숨 쪽을 포기하고 도의 쪽을 선택한다. 목숨도 중요한 것이지만,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의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도의를 지킬 때까지 목숨을 지키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맹자의 주장이다. (告子上).
즉, 정의나 진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.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,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이다. 이런 선상에서 공자는 살신성인(殺身成仁)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다.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서도 인(仁)을 이루라는 말이다.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는 사기위인(捨己爲人)도 같은 취지의 말이다.